

## 제11회 지상무기체계발전 세미나

- 「정예 정보·과학 육군」건설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교육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1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전력소요체계 관련자와 방산관계자 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일 국과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체계, 화력, 기동 I, II, 탄약/소재, 정보/통신, 유도/항공/시험평가/화생 분과 등 7개 분야 총 79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03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비무기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주관으로 군·연구기관, 방산업체 및 벤처업체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비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군 주도 개발품목 개발방향, 효율적인 장비/물자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0월 2일 엑스포 과학공원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다.

6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야외전시장에 20개 업체가 개발품목을 전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제12회 항공우주 심포지엄

- 「항공우주군 시대의 국가안보와 공군력」을 주제로



공군은 지난 10월 15일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관계자들과 산학연 관계자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서울대, 연세대 등의 관련학과 교수들과 과학기술부와 국방연구원 소속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공군 우주력 건설」, 「한국 항공우주군의 활동영역」 등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방산학회, 22회 정책포럼 개최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주제로



제22회 방산정책포럼이 지난 9월 26일 관안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의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주제로 조선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관안도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산화 개발에 대한 유인 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이 동시에 강화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협력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코리아 에어쇼 2003에서 접할 흥미로운 쟁점들

Jane's Information Group  
컨설팅 팀장 Douglas F. Ramsey

올해 6월 초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주둔 중인 미군 구조의 대대적인 조정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정책 구상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양국은 연합군의 안보체제 강화와 주한미군의 구조조정 모두를 겨냥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함께 공표하였다.

당시 양국 간의 논의 결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항은 양국 간 국방/안보의 연합력 향상을 위하여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미국의 발표였다.

이 자금은 향후 4년 동안 양국 간의 연합국방을 위한 150개 이상의 분야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미 구체화된 단기적 과제들로서는 정보수집 체계의 대규모 첨단화, 합동 직접공격무기(JDAMS)의 재고량 확대, PAC-3 미사일의 실전배치 및 타격여단전투팀(SBCT)의 도입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한미군의 AH-64A "Apache" 공격헬기도 AH-64D "Apache Longbow" 헬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들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과제들은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감시/정찰(C<sup>4</sup>ISR)의 역할 및 수행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한 주요 장비들의 신규 조달과 작전적 성능개량의 노력 등이 요구될 것이다.

기존의 C<sup>4</sup>ISR 요소들 또한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신규 기지/시설 등도 신규 도입이나 통합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몇 개의 주요 항공기 관련 사업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T-50 'Golden Eagle' 초음속 고등훈련기이며, 생산의 결정은 빠른 경우 11월로 기대되고 있다.

T-50은 한국 내 생산능력의 추가적 향상/발전을 겨냥한 혁신적 노력의 결과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ockheed Martin사간 공동노력의 결실이다. 일단 생산 결정이 공표되면, 오는 2005년도 말까지의 기대생산 대

수가 200여대에 달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T-50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점은 동 기종의 수출 잠재성과 연계될 전망이다. 한국 내 자체적으로 개발된 KT-1 "웅비" 훈련기는 한창 해외 신규시장의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구미'를 자극해 왔다.

KT-1은 해외판매를 위하여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항공기이다. KT-1을 조종사 훈련기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공군의 경우 지난 4월 7대를 납품받은 바 있다.

한국 내외 모든 이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항공기 관련 사업들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의 조달에 대한 재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Airbus와 Boeing 양 사는 이 대규모 사업에 입찰을 재 시도하고 있다. 또한, 수송기 20대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의 코리아 에어쇼에서는 F-15K 전투기의 획득도 지속적인 '핫이슈'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국 공군은 오는 2005년도부터 40대의 F-15K를 납품받을 계획이며, 동 기종은 St. Louis에 위치한 Boeing사의 생산공장에서 이미 제조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최종적 사양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역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 명백하다. 한국 국방부는 동 기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또는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동 사업은 2012년도 까지 약 500대 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 계약규모는 6억 2,500만~6억 6,6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고 있는 Douglas Ramsey는 영국 Jane's Information Group 컨설팅 사업의 북미/아태 지역 총괄자이다. (douglas.ramsey@janes.com)